

JB금융그룹, 최대 규모 이익 거둬

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 2분기 당기순이익 2분기 중 875억원 상반기 누적 1582억원

JB금융그룹이 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한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뒀다.

지난 31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2분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으로 2분기 중 875억원, 상반기 누적 1,582억원을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전분기 대비 23.9%, 전년동기대비(누적) 22.8% 증가한 수치다.

이번 2분기 실적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과 대내외 우호적인 금리환경 및 자산 구조의 개선에 따른 NIM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했다.

또한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관리비가 안정됐으며, 부실여신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실질 대손비용률이 역대 최저수준인 0.38%를 기록하는 등 전 부문에서 지표가 고르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회사별로는 전북은행이 상반기 37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10.3% 감소했으나 분기중으로 285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대비 212.2%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은행과 JB유리캐피탈은 각각 412억원과 201억원을 실현해 안정적인 순익 규모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전년도에 인수한 프놈펜산업은행도 54억원을 기록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를 닦아 나가고 있다.

은행의 핵심이익 지표인 그룹(은행)

NIM(분기중)은 전분기대비 0.07%p 상승한 2.28%(전북은행 2.28%, 광주은행 2.28%)를 나타냈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고정이자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이 전분기대비 각각 0.03%p 하락한 1.01%와 0.94%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실질 대손비용률(누적) 역시 은행들의 총당금 추가 적립 감소로 전분기대비 0.03%p 하락한 0.38%(전북은행 0.44%, 광주은행 0.21%)를 기록했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그룹 실질 영업 이익경비율(CR)도 전분기대비 2.0%p 감소한 48.5%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자산포트폴리오 개선과 위험가중자산(RWA)의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큰 폭의 이익증가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8.30%(잠정)로 전분기대비

0.30%p 증가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했던 일부 총당금 추가 적립과 유가증권 부문의 손상차손 같은 부정적 요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상적인 이익규모를 회복한데 이어 NIM이 상승하는 등 핵심이익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순이익 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올해 위험자산대비수익성(RoRWA) 같은 이익의 질적 성장을 초점을 맞춰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여신관리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국군장병 위문편지 전달 전북우정청과 제35사단은 지난 31일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달 도내 30여개 초·중·고교 학생들 이 종결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위문편지에 대해 제35사단 장병들의 고마운 뜻과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담은 편지 전달식을 가졌다.

농어촌공 전북, 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활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어촌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위해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올해 1,3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112지구에 상반기까지 70%가 넘는 사업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어,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등 8개 시군, 11지구에서 251억원의 예산으로 가물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사업은 상반기 78%의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내 22지구에서 492억원의 예산으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배수개선사업은 71%의 사업공정률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제시 등 6개 시군, 8지구에서 162억원의 예산으로 기계화면 시설에 맞게 눈을 재 정비해 영농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은 상반기 95%의 사업추진으로, 영농기내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고, 신규지구는 올해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내 71지구에서 452억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취락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상반기 8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진행 중이다.

김준채 본부장은 “상반기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농업인들의 영농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으로 농업인들의 안전영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단경기 틈새작물엔 ‘귀리’가 으뜸

농진청, 기상변화로 풍작으로 확보 어려워져... 가을 귀리 재배로 풍작으로 생산 확보

연이은 기상변화로 풍작으로 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지금 심어 3개월 뒤에 수확하는 틈새작물로 농촌진흥청이 귀리를 추천했다.

농촌진흥청은 단경기의 틈새작물로 가을 귀리를 재배해 풍작으로 생산과 확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가을 잦은 비와 올해 계속된 가뭄으로 겨울 사료작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40~60%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여름 사료작물 옥수수의 생육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입 풍작으로 할당세 배

당(쿼터)물량을 기존 90만톤에서 올해 150만8,000톤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등 풍작으로 주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신흥소비국들의 풍작으로 수요 증가로 국제 풍작으로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

귀리는 생육속도가 빠르고 재배기간이 짧아 여름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뒤부터 월동 사료작물을 파종하기 전까지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헥타르(ha)당 20톤 이상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

가을 귀리는 장마가 끝난 후 일

찍 파종해 보통 10월 하순에 수확하는데, 8월 중순 이후 파종할 경우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이삭이 빨리 패는 조생종이 유리하다.

특히, 남부지역은 북부에 비해 사료용 옥수수의 수확시기가 빠르고 월동 작물의 파종시기가 늦어 귀리 생육기간을 늘릴 수 있어 수량도 많아진다.

조생종 귀리 품종으로는 국내 육성종 ‘다크호스’, ‘하이스피드’, 도입종 ‘스완’, ‘팔린업’ 등이 있으며, 지역 낙엽이나 축엽, 종자업을 하는 영농법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육성품종은 도입종에 비해 수량이 많으며 무소독 종자로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가을 귀리는 짧은 기간에 성장해야 하므로 적정 파종량과 비료량을 지켜 생육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논에 재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수를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촌진흥청 김병주 중부작물과장은 “가을 귀리는 조단백질 함량이 높고 낫소의 유량 증가와 한우 비육우 체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귀리를 가을에 많이 재배하도록 우수한 품종 개발에 중점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8월 1일 오후 2시부터 7일까지 12월 항공권에 대한 특가 운임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 항공권의 탑승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 간이며, 국내선 4개 노선, 국제선 16개 노선에 대한 얼리버드 요금을 제공한다.

국내선의 경우 편도총액운임 최저

김포-제주 1만1,000원, 청주/부산-제주 1만3,900원, 군산-제주 1만5,000원부터 판매된다.

일본노선은 편도총액운임 최저 인천-도쿄(나리타) 8만8,0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7만8,000원, 부산-오사카(간사이) 6만3,000원, 인천-후쿠오카 7만9,000원, 인천-오키나와 8만9,000원, 인천-삿포로 12만8,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설명회 개최

전북조달청은 지난 28일 전북대학교 전산원 시청각실에서 전북지역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소경품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다수공

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1일 이전에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지난 14일 조달청 나라장터 소경품 등록 상품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나찰제 폐지 등에 대한 납품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모션 행사기간은 위메프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G마켓과 11번가는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34일간 진행 될 예정이다.

제품 선정방법은 각 채널의 MD가 제품의 차별성과 신뢰성 및 가격·품질 경쟁력 등을 통해 선정하며, 세부 일정은 유통채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 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kr)이나 전화 문의(국내 마케팅팀 ☎063-711-2032)로 확인할 수 있다.

5차 온라인 프로모션의 주요 테마는 ‘추석과 가을맞이’이며, 모집 품목으로는 추석선물세트 및 가을 식품 등을

프로모션 행사기간은 위메프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G마켓과 11번가는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34일간 진행 될 예정이다.

제품 선정방법은 각 채널의 MD가 제품의 차별성과 신뢰성 및 가격·품질 경쟁력 등을 통해 선정하며, 세부 일정은 유통채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 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kr)이나 전화 문의(국내 마케팅팀 ☎063-711-2032)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